

# 현안과 과제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와  
다보스의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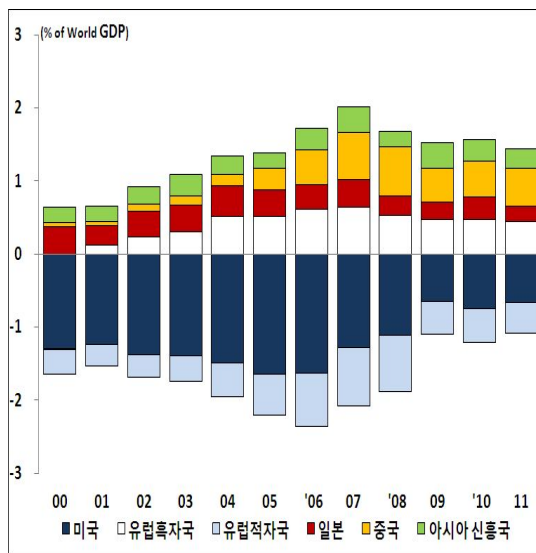
## 1. 디스토피아 가능성 확대

○ (디스토피아(Dystopia)<sup>1)</sup>의 배경) 국제적 무역불균형 확대, 글로벌 재정위기 지속, 글로벌 소득 양극화 심화, 글로벌 청년실업 심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디스토피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제적 무역불균형(Global imbalance)확대) 선진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로 지속되는 국제적 무역불균형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 간 격차는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정책공조와 불균형 축소 노력으로 2009년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0년 이후 재차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이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중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해결과 위안화 절상은 서로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맞서는 등 글로벌 환율전쟁이 심화됨
-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화의 가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가치의 절상에 따르는 경기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

<주요국 경상수지 대비 세계GDP 비중>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주: 1)유럽 흑자국: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2)유럽 적자국: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등  
 3)아시아 신흥국: 인도, 아세안5 등

<2011 글로벌 재정위기 이후 환율 전쟁>

국가	환율 전쟁 내용
미국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이 글로벌 불균형 초래 · 환율 감시 개혁법(8월) · G20, APEC, EAS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 재차 강조 · TPP에서 중국 제외(11월)
중국	위안화 절상은 미국실업률 및 무역적자 해결과 무관 · 동북아 FTA 추진(11월) · 위안화 하드커런시 가속화
스위스	유로/스위스 프랑 환율이 2011년 9월 5일 1.1 프랑까지 하락하자 스위스 정부는 9월 6일 對 유로 환율을 1.2프랑으로 최저 수준으로 설정
일본	엔화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10월 31일 외환시장 개입 · 규모는 사상최대치인 9.1조엔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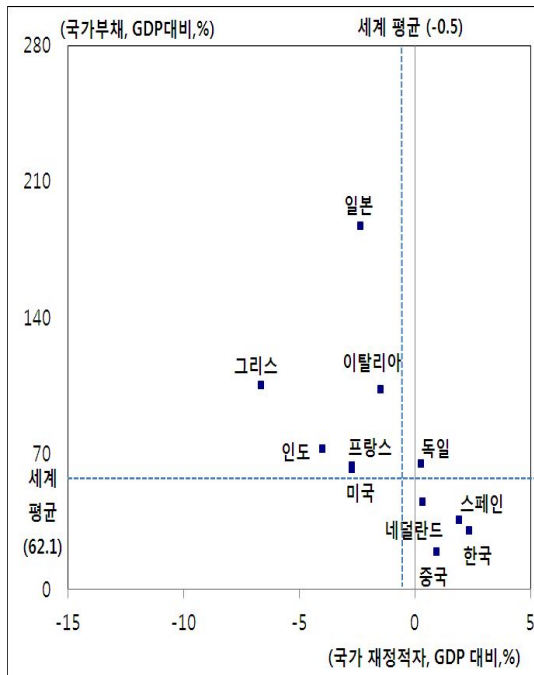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1) 디스토피아(Dystopia)는 유토피아(Utopia)의 반대말로 인구적, 사회적, 재정적 위험 요소들이 향후 10년간 암울한 미래를 가져올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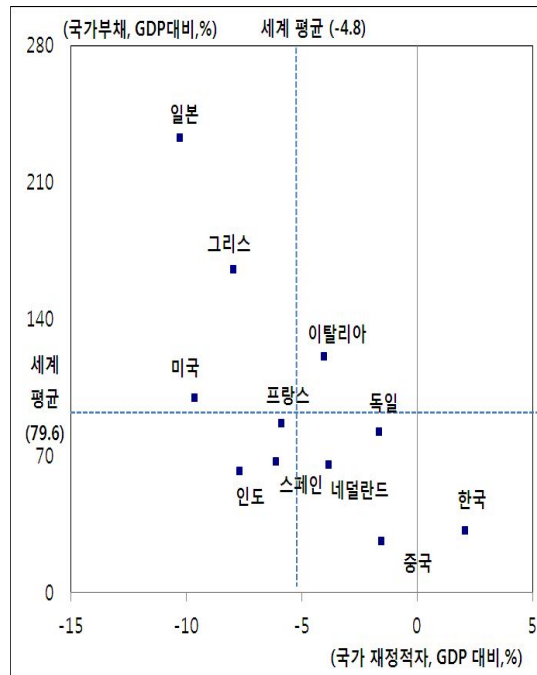
- (글로벌 재정위기 지속)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린 선진국들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위기에 직면하였고, 심지어 국가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많이 한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갑자기 늘어나 GDP대비 100%를 넘어서는 등 위험수위에 도달함. 또한,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경기둔화로 세입과 세출이 감소하여 복지서비스가 줄어들어 따라 국민과의 사회계약이 위협에 처해 있음
- 2007년 미국의 GDP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비중이 각각 2.8%, 62.3%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각각 9.7%, 100.1%로 급증하면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PIIGS 국가에 속하는 스페인 경우 2007년 GDP대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비중이 각각 1.9%, 36.1%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각각 6.1%, 67.4%까지 증가함. 재정위기에 빠진 그리스는 자금조달 문제 때문에 2011년 국가부채 비중이 165.6%까지 증가함

〈2007년 주요국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2011년 주요국 국가부채와 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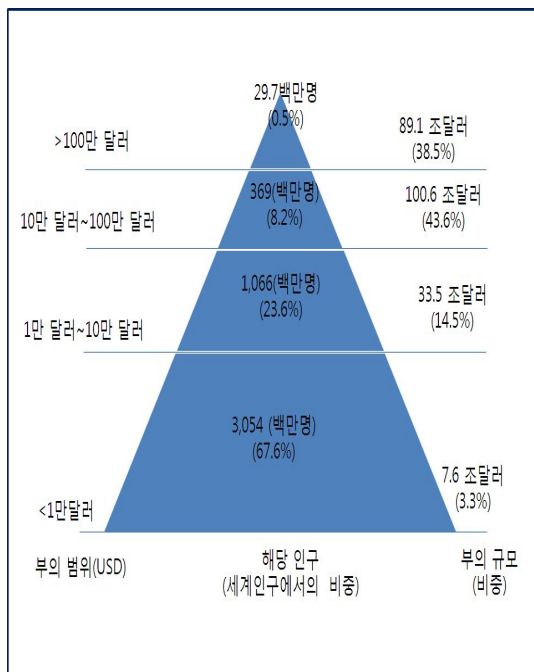


자료: IMF, 현대경제연구원.

- (글로벌 소득 양극화 심화) 심각한 소득 불균형은 사회적·정치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빈부 격차는 심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말까지 대부분 국가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sup>2)</sup>는 나빠져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세계 인구의 0.5%가 세계 부의 38.5%를 소유한 반면, 세계 인구의 67.6%는 세계 부의 3.3%를 소유하는데 그침

<글로벌 부의 피라미드>



자료: Credit Suisse. *Global Wealth Report 2011*.

<세계 주요국 지니계수 추이>

국가명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후반
미국	0.361	0.378
영국	0.336	0.345
스웨덴	0.211	0.259
프랑스	0.277	0.293
이탈리아	0.348	0.337
독일	0.266	0.295
일본	0.323	0.329
캐나다	0.289	0.324
한국	-	0.315
OECD 평균	-	0.314

자료: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가처분소득 기준 (전국 1인 농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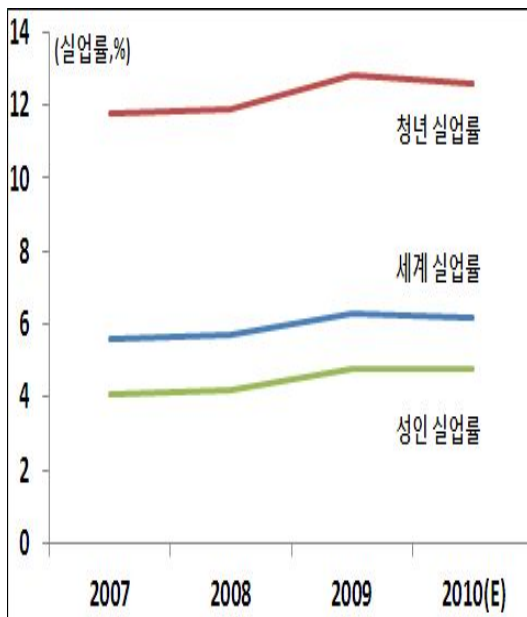
- (글로벌 청년실업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와 만성적인 고용시장의 불균형으로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있음

- 고용시장에서는 숙련된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청년구직자들은 경제적·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세계 청년 실업률은 2007년 11.8%에서 2010년 12.6%로 0.8%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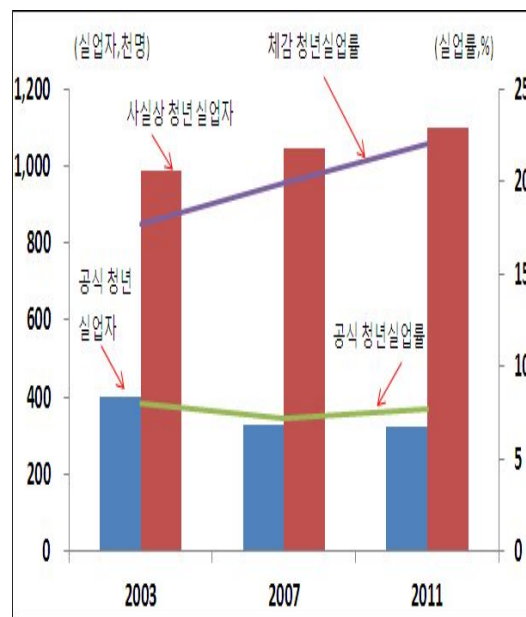
2)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란 소득 분배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이고 지수가 높아질수록 불균형 분배 상태를 나타내고 지니계수 1은 완전 불균형 상태를 나타냄.

- 또한, 한국의 경우도 고용시장 미스매치와 경기침체로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 등 사실상 청년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체감 청년실업률이 증가 추세에 있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연평균 7.4%씩(6.5만→11.5만) 증가했고, 취업준비자도 5.7%씩(26.8만→41.9만) 늘어났음
- 2011년 한국의 공식적 청년실업률은 7.7%이지만 체감 청년실업률은 22.1%로 3배가량 높은 수준임

< 세계 청년실업 추이 >



< 한국의 청년실업 추이 >



자료: ILO(2011), 현대경제연구원  
 주: 청년은 15세에서 24세까지를 의미하고 25세 이상은 성인으로 분류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주1: 청년은 15세에서 29세까지를 의미  
 주2: 사실상 실업자는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취업무관심자를 포함

## 2. 다보스의 대안 제시: 4가지 모델과 6대 도전 과제

### (1) 대전환과 4가지 모델

- (대전환: 新모델 형성) 더욱 복잡해지고, 상호의존적이고,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계에서 디스토피아와 같은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며, 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해 대전환과 새로운 모델들이 필요함

- 2012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대전환: 新모델 형성 (The Great Transformation: Shaping New Models)’을 제안함
  -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4가지 모델은 ① 성장과 고용 모델 ② 리더십과 혁신 모델 ③ 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 ④ 사회적·기술적 모델
  - 다보스 포럼에서 리더들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변할 것인지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새로운 개념적 모델을 구체화하고, 만인이 원하는 해결책을 찾고, 눈 앞의 위험과 기회에 협동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할 것임
  - 의사 결정권자들은 다양한 이슈에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탁월한 협동심과 대담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 ① **성장과 고용 모델(Growth and Employment Model)** : 소비와 부채 위주의 성장에서 나타나는 산업모델을 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게 전환 시켜야 함
  - 지속가능하고, 진취적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은 글로벌 경제가 균형을 되찾고 부채를 청산한 이후에 가능할 것임
  - 진취적 기업가 정신은 미래의 고용창출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② **리더십과 혁신 모델(Leadership and Innovation Model)**: 주요 선진국과 냉전 시대(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조직된 글로벌 거버넌스 기구들은 신흥국과 민간 기구 그리고 여러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파트너십을 증진시켜야 함
  - 새롭게 등장하는 이들은 중요한 글로벌·지역적 이슈에 대해 언급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입하는 책임을 가져야할 것임
  - 오늘날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임
  - 리더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미래 인구학적 분화를 막고 통합을 이룩하는 것임
  
- ③ **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Sustainability and Resource Model)** :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래의 행동과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것임
  - 불충분한 에너지, 음식, 물 등 미래의 제한된 자원을 보호하려는 정부, 산업, 기업 사이에 협동과 혁신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함
  - 우리의 생태학적 공간은 비즈니스모델에 완전히 내재되어있어야 함

- ④ **사회적·기술적 모델(Social and Technological Model)** : 생명과학(life Sciences), 나노 기술(Nanotechnology),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등 기술혁신의 다음 물결은 생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할 것임
- 물질세계를 보호하고 선호하는 사회적 수준, 규범, 행동, 가치는 디지털 세계에서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움
  - 수십억의 센서와 장비들이 네트워크와 연결된 것이 현실화되면서 이해당사자들은 미래 발전의 중요한 자원인 지식, 데이터,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다보스 포럼이 제시한 대전환과 4가지 모델>**

	4가지 모델	내 용
대전환 (新 모델 형성)	성장과 고용 모델	- 질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필요 - 동반 성장을 위한 안정적 고용 정책 필요
	리더십과 혁신 모델	- 신흥세력의 부상으로 글로벌 정치·경제 문제를 공유하여 해결책을 도출할 것임 - 인류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
	지속가능성과 자원 모델	- 부족한 자원확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
	사회적·기술적 모델	- 과학 혁신은 인류에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할 것임 -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 규범의 필요성 강조

자료 : WEF

**(2) 6대 도전 과제**

○ (6대 도전 과제) 2012년 이후 디스토피아 태동의 우려가 있는바, 그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대 도전 과제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함

- ① (글로벌 경기침체) 유로존 부채위기, 미국 신용등급 하락, 무역불균형 심화, 실업률 증가,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대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될 전망



-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부채위기에 직면해있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단계에 직면
- 금융시장은 건전성과 체계적인 글로벌 금융시스템 부재로 불안정성 증대

- (대안) 유로존 부채해결

- 단기적으로는 그리스 국가부채 조정, 국가부채에 노출된 유럽은행 부채 조정, 유로존 유동성 공급 등의 방안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과 안정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공해야 함

② (글로벌 파워 시프트와 신흥시장) 경제적, 정치적 파워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이동함

- 과거 세계의 권력이 미국 등 주요 선진국으로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글로벌 파워가 중국, 남아프리카, 브라질을 주축으로 한 지역 패권주의로 이동할 것임
- 세계 각국을 통제하는 국제기구인 힘은 약해지는 반면 무역, 금융 등 국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의가 부상함
- IT와 미디어 발전은 '월가 점령시위'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짐

- (대안) 북한,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파트너

-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민간, 정부의 다양한 채널 구축
-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지원
- 동북아의 다양한 안보 협력체계 구축
-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자립화

③ (동반성장과 고용창출) 동반 성장의 기초는 고용

- 실업문제는 2012년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임
- 실업은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 글로벌 인구 증가, 빈부격차 심화, 교육·기술·고용시장의 격차 심화 등을 반영함



- (대안) 단기적 고용 창출

- 대규모 인턴십과 견습직 프로그램 필요: 청년들에게 실전에 필요한 기술, 기업문화, 비즈니스 태도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기반구축사업(Infrastructure Project)확대: 경제적, 사회적 기반(SOC)을 구축하는 대규모 사업은 기업 경영환경과 국가경쟁력을 개선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함

④ (정치적 신념과 다수 이해관계자 통제)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와 공공기관의 불신 증가

- 현재 경제위기는 각국의 금융시장과 경제에 빠르게 전염되고 있고 경제는 국가간 연결성이 높은 반면 정치적으로는 연결성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리더십이 부족함
- 경제와 환경의 위기, 빈부격차 심화,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 증가

- (대안) 조율된 거버넌스 또는 의지의 연합 (Coalitions of the Willing)

- 법에 근거한 조율된 거버넌스: 기초적인 법·규범과 조화를 이루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스템과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조율된 거버넌스 필요
- 새로운 리더십: 장기적 안목과 대담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과 노력이 필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민간, 정부, 시민단체의 파트너십이 중요

⑤ (천연자원의 희소성과 기후 변화) 천연자원과 기후변화가 경제 발전과 성장에 끼치는 영향 증가

- 2011년 10월 방콕의 대홍수는 경제성장률 1%~1.7%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IEA에 따르면 체계적인 글로벌 환경규제가 없다면 미래의 세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임
- 경제성장과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식량, 에너지, 수자원에 강한 압박을 주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와 통합된 정책적 해결책이 필요. 2030년까지 물의 수요와 공급 사이에 40%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함<sup>3)</sup>

- (대안) 새로운 액션프로그램의 도출

- 자원활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
- 이산화탄소 배출을 위한 산업 기준과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이 필요

⑥ (디지털 혁명과 진화)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행은 인간사회에 위협과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줌

- 삶의 모든 면에서 디지털 세계로 진화되고 있으며 결국 인터넷은 글로벌 번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사이버 범죄 그리고 다른 형태의 온라인 범죄행위를 초래
- 디지털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투명성을 보장하는 규범이 필요

- (대안) 신뢰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사이버 범죄 등 위협요인을 줄이기 위해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규칙에 의거하여 합의된 시스템은 위협요인을 줄이고, 발생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데이터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될 것임

3) Charting Our Water Future.

### 3. 시사점

- 2012년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의 디스토피아를 회피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
  - 2012년 다보스포럼은 세계경제가 향후 디스토피아에 빠지지 않으려면 대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4가지 모델과 6대 도전과제를 제시
  - 다보스포럼의 핵심 주제가 대전환과 4가지 새로운 모델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반성과 대안 모색이 주조를 이룰 것임
  
- 2012년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도출해 내는 ‘공동혁신(collaborative inno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 도출을 압박하고 있음
  - 3년째 계속되는 유럽 재정위기의 해법 도출을 위해 함께 지혜를 나누고 함께 노력하여 혁신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공동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을 압박하고 있음
  
- 세계경제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안전망’의 필요성을 강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글로벌 재정위기 등 계속되는 세계경제의 위기와 절연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호주의의 대두를 예방하는 등 ‘글로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경제연구본부 선임연구원 정민 (2072-6220, chungm@hri.co.kr)

<별첨1>

### 다보스 포럼 개요

- 다보스 포럼은 세계경제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장을 제공
  -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의 의견교환의 場인 제 42회 다보스 포럼은 2012년 1월 25일~2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
  - 매년 세계 주요국 정치 지도자, 국제기구인사, 재계, 학계, 문화계, 과학계,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통찰력을 제시하는 포럼으로 자리매김
- 작년 다보스 포럼이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질서의 불안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면 2012년 다보스 포럼은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보스 포럼의 주제와 참여 인사>

	주제 및 논의내용	주요 참여 인사
2009(39회)	위기 이후의 세계 (Shaping the Post-Crisis World) - 국제적 협력 - 효율적인 거버넌스 - 기업가 정신과 혁신 - 금융보호주의 - 세계경제 새 질서 - 아시아의 부상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2010(40회)	더 나은 세계 (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금융개혁 압력 - 신중한 세계경제 낙관론 - 글로벌 리더십 변화 - 기후변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교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리커창 중국 부총리 등
2011(41회)	새로운 현실:(New Reality) - 무역불균형 - 신흥국과 선진국 경기 회복 격차 심화 - 노령화 - 지원부족 - 기술혁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2012(42회)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 - 4가지 모델 - 6대 도전과제	비ক্র람 판티드 시티그룹 최고경영자, 세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 책임자, 피터 보서 셀트 대표 등

<별첨2>

<세계 경제의 6대 과제 및 해결방안>

6대 도전 과제	주요내용	해결방안(新모델)
글로벌경기전망	공공부채 위기, 취약한 경제전망, 불안정한 금융시장, 글로벌화의 회귀	유로 부채 문제 해결 글로벌 유동성 공급 금융 시스템 리스크 조절
글로벌 파워시프트와 신흥시장	남과북 사이 권력 공유, 영향력 이동에 가속화 , 권력의 이동	북한을 위한 새로운 모델 다극 통화 시스템의 준비 아프리카의 두자리 수 경제성장 달성
동반 성장과 고용 창출	불평등 증가, 인구증가, 실업증가(청년층 실업), 교육과 기술, 고용시장의 격차 증가	-평생 직업 훈련 - 교원역할 강화 - 유년기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 - 단기적 고용 창출 방안
정치적 신념과 다수이해관계자 통제	커지는 리더십의 공백, 커지는 공공기관의 불신, 행동주의 부상, 공적가치를 이끌어내는 방법	-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모색 -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미지
천연자원 희소성과 기후변화	지속되는 환경, 이슈녹색 성장 혁명, 상향식 응답의 진화, UN 지속가능발전회의(Rio 20)	- 미래 성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건축 - 새로운 액션 프로그램 도출 - 혁신
디지털 혁명과 진화	정부의 합법성에 도전, 권력 균형의 이동, 투명성 요구, 분열된 인터넷?	- 교육의 변화 - 신뢰할수 있는 체계 - 정보화 사회

자료 : WEF, 「 Outlook on the Global Ageda 2012 」.

<별첨3>

<2012년 글로벌 리스크>

리스크 범주	2012년 글로벌 리스크
경제적 리스크 (10개)	만성적 재정 불균형, 만성적 노동시장의 불균형,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 변동성, 신흥국의 경착륙, 금융시스템 실패, 장기적인 사회기반 시설 투자 소홀, 유동성위기 재발, 심각한 빈부격차, 예견할수 없는 규제 부정적 결과, 통제할수 없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10개)	위태로운 취약한 정부, 대량파괴 무기의 유포, 견고한 조직 범죄, 외교적 충돌 해결의 실패, 글로벌 통치기구의 실패, 군대화, 견고한 붕괴의 확산, 테러리즘, 단독적인 자원의 국유화, 불법 무역증가
기술적 리스크 (10개)	중요한 시스템의 실패, 사이버 공격, 지적재산권 실패, 대량 디지털 오보, 정보 유출, 광물 자원 공급의 취약, 궤도 잔해의 급증, 기후변화 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나노테크놀로지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생명과학 기술의 의도되지 않은 결과
환경적 리스크 (10개)	항생제 저항하는 바이러스, 기후변화 적응 실패, 돌일킬 수 없는 환경 오염, 땅과 수로 사용 실패, 도시화 실패, 지속되는 극단적인 날씨, 온실가스 배출 증가, 종의 과잉개발, 전례없는 지구물리학상 파괴, 자기 폭풍의 취약성
사회적 리스크 (10개)	글로벌화의 반발, 식량 부족의 위기, 효과없는 의약 정책, 인구노령화의 관리 실패, 만성병 증가, 광신도 증가, 이동 실패, 지속불가능한 인구 성장, 전 세계적인 유행병 취약성, 물공급의 위기

자료 : WEF, 「Global Risks 2012」.